

# 제주올레의 평가 및 개선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연구

## -올레꾼 분석을 중심으로-

현 군 출\*                      김 태 일\*\*                      양 건\*\*\*  
Hyun, Gun-Chul              Kim, Tae-Il                      Yang, Gun

###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개설된 제주올레를 방문하는 이용자로 통칭되는 올레꾼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올레를 어떻게 평가하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분석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이용자의 입장에서 올레를 방문하는 목적을 파악할 수 있고 올레를 거닐며 느꼈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등 이용자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생태문화로 조성의 접근방법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의식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설문조사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올레꾼이 머무는 숙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행형태 및 비용
- 2) 올레꾼들의 올레 이용실태
- 3) 올레코스의 평가
- 4)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0일~24일까지 총 2주간 실시되었으며 총 1,300부를 배포하여 유효설문지 1,089부를 회수(회수율 83.8%)였으며 통계분석은 범용프로그램인 SPSS-win12.0을 사용하였다.

### 2 조사자 속성 및 여행 형태 특징

#### 2.1 조사자의 속성

조사에 응한 올레꾼의 연령은 20대가 36.1%, 30대가 28.5%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은 공무원/회사원이 29%, 전문/관리직 1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35.1%, 경기도 거주자가 22.2%로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조사 올레꾼의 속성

항목	내용	빈도(n)	비율(%)
성별	여자	659	60.6
	남자	429	39.4
연령	20세이하	43	3.9
	21-30세	393	36.1
	31-40세	310	28.5
	41-50세	218	20.0
	51-60세	109	10.0
	60세이상	16	1.5
학력	고졸이하	113	10.7
	대학재학	153	14.5
	대학졸업	622	59.0
	대학원(졸업)	167	15.8
직업	공무원/회사원	315	29.0
	서비스업	91	8.4
	사업/자영업	79	7.3
	주부	94	8.7
	학생	198	18.2
	전문/관리직	194	17.9
	기타	115	10.6
거주지	서울	382	35.1
	경기도	241	22.2
	강원도	18	1.7
	충청도	46	4.2
	경상도	237	21.8
	전라도	64	5.9
	제주도	68	6.3
	기타지역	31	2.9

#### 2.2 여행 형태

그림1과 그림2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올레 여행을 하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지만, 혼자 여행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다. 30.4%가 혼자 여행을 왔고 한 명 또는 단 둘이 하는 여행의 비율을 합하면 77.9%에 이른다. 이는 걷기 여행이 명상 여행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고자 올레 여행을 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보 여행 길인 스페인 산티아고를 찾는 여행자들이 산티아고 길을 ‘순례자의 길’ ‘명상의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제주올레도 도보 여행 마니아들에게는 풍광이 아름다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명상과 순례를 위한 길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건축사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건축사

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또, 제주올레는 열명 중 여섯 명 가량이 여성 올레꾼이 찾는다. 이는 여성 혼자 여행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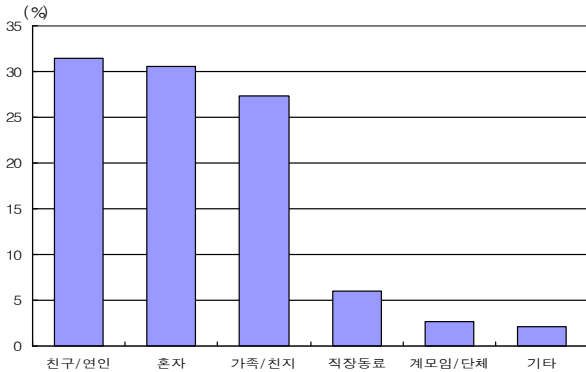


그림 1. 함께 여행하는 상대(n=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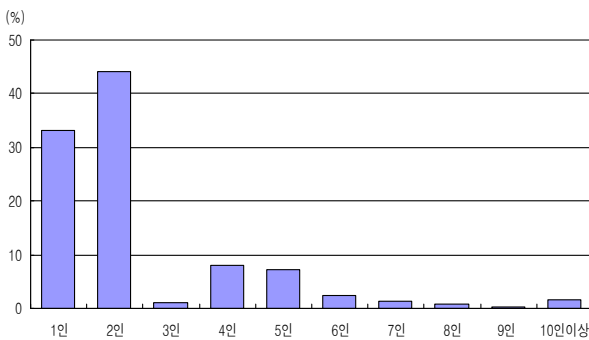


그림 2. 여행자수(본인포함)(n=1083)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올레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안전한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감성으로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 풍광이 아름다운 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비교적 편안한 길이라는 인식이 여성들의 여행지로 각광받는 비결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올레길은 인생의 동반자(가장 친한 연인 혹은 벗) 그리고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사랑과 우정과 가족애를 다지는 길이다. 함께 길을 걸으며 그 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택하는 길이다. 즉 올레 길은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길이다.

그리고 올레길은 순례의 길이다. 혼자 이 길을 걸으면서 바쁜 일상을 벗어난 자유를 만끽한다거나, 복잡한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서 사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순례길이었듯이 제주올레 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순례 코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3 올레 경험 여부

그림3과 같이 올레꾼의 54.6%는 제주올레 여행이 처음

이지만, 나머지 절반가량은 도보 여행 유경험 또는 매니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 몇 번 다른 지역에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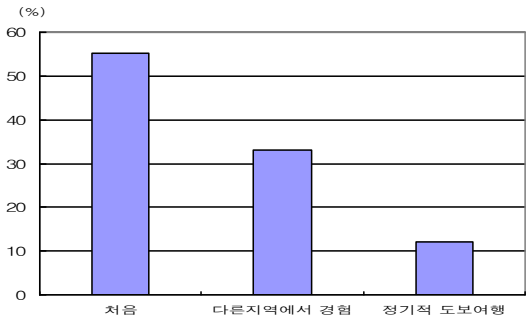


그림 3. 올레와 유사한 탐방길 경험여부(n=1086)

보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가 33.9%, 정기적으로 도보 여행을 하는 이가 11.6%에 이른다. 이는 도보 여행이 대중적인 여행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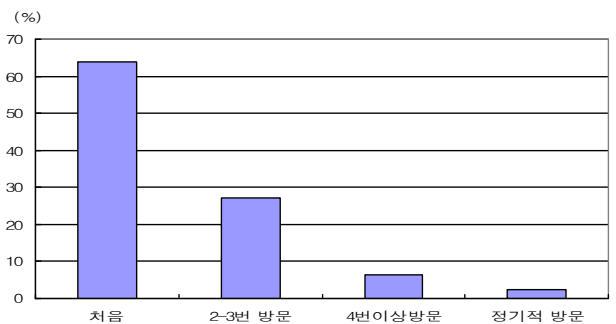


그림 4. 제주올레경험여부(n=1082)

올레꾼의 63.3%는 제주올레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지만, 약 40%는 제주올레를 두 번 이상 방문했던 사람들이므로 나타났다(그림4). 이는 제주올레가 한번 오고 말 여행지가 아니라 자주 오고 싶은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고, 코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코스를 돌아보고자 하는 이가 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 2.4 체류기간 및 소요경비

올레꾼의 54.5%는 3일~5일 정도 제주에 체류하며, 32.1%는 7일 이상 제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5). 올레꾼들은 평균 6.2일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가 2박3일의 여행지로 인식되던 것에서 장기 체류 여행지로 바뀌고 있고, 특히 제주올레 탐방을 위해 체류일을 연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레꾼 대다수는 제주시 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6). 올레꾼의 88.6%가 서귀포시 지역 숙박 경험이 있고, 제주시 지역 숙박

경험이 있는 올레꾼은 전체 올레꾼의 42%가 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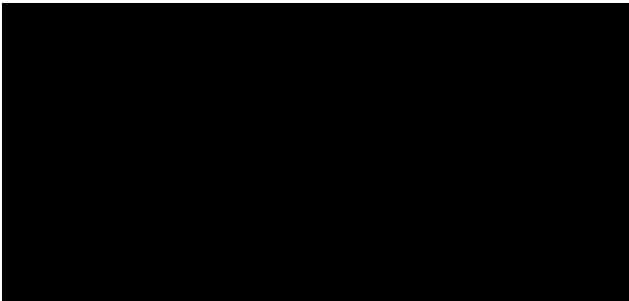


그림 5. 체류일(n=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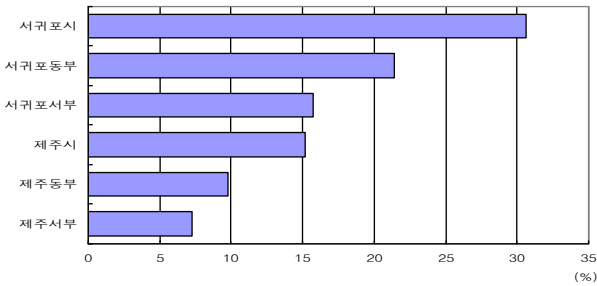


그림 6. 체류장소(복수응답, n=1905)

된다. 이는 제주올레 코스가 현재 서귀포시 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밀접하다. 제주올레 패스पोर्ट가 서귀포시 권역 코스에서만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1코스~12코스), 제주올레 여행 초보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1, 7, 10코스 등)가 모두 서귀포시 권역에 있는 까닭이다. 코스의 활성화가 여행자들의 체류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레꾼은 주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7). 이는 물론 설문조사를 올레꾼이 주로 묵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혼자 또는 둘이 장기 체류 여행을 하는 올레여행 패턴 상 전체 여행 경비 중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 경비 절약을 위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주올레 길 주변의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는 이미 도보여행자 문화가 정착되어 숙소에서 만난 올레꾼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우정을 쌓는 문화가 일상적이다. 여행자들은 길을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주올레 여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올레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코스에 있는 등지황토 민박의 경우 비수기에는 하루 평균 100명~150명의 올레꾼이 머물며, 서귀포 시내에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 민중각 모텔이나 남국호텔의 경우 비수기에도 예약이 꽉 차는 수준이다. 이들 모텔은 하루 수용 인원이 50~60명 가량 되는데, 한 달 뒤까지 예

약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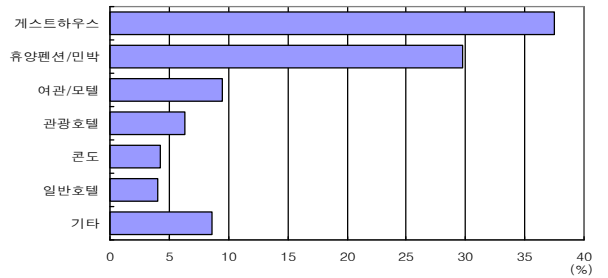


그림 7. 숙박 장소(복수응답, n=1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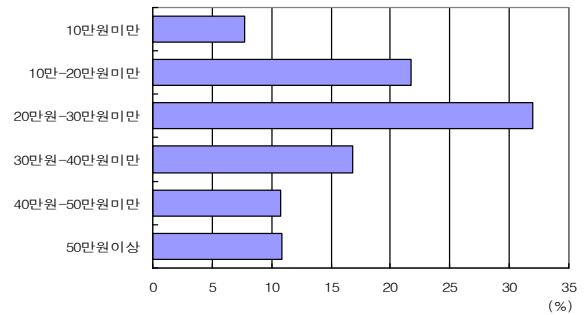


그림 8. 소요경비(n=1063)

올레꾼은 항공료와 승선료를 제외하고, 제주올레 여행 중 먹고, 자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20~30만원 정도의 비용 지출이 32%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20만원이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8).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비교적 숙박료가 싼 곳에서 자고 먹고 이동하고 특산물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그러나 평균 6일 정도 체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30만원 사용을 전제로 계산할 경우 1일 평균 4~5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들 금액은 1일 지출 금액으로 볼 때 적절한 금액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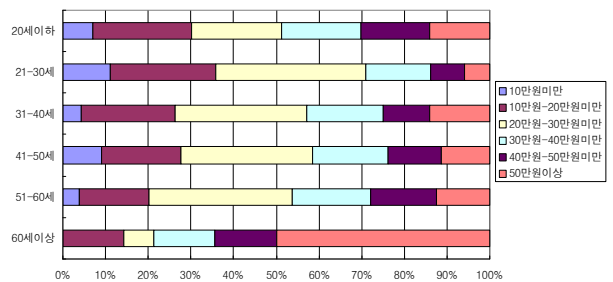


그림 9. 연령별 소요경비(P<0.00 df=25  $\chi^2=63.9$ )

한편 연령별 소요 경비를 살펴보면(그림9), 연령이 높을수록 소요 경비가 증가하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50만원 이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높은 사용자들의 경우,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보다는 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선물 구입(지역 특

산물 택배 포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의 경우 35.1%, 30대의 경우 30.9%가 20~30만원정도를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 올레 관련 자료 수집 및 안내 센터 방문 여부

올레꾼은 여행을 오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특히 이들의 72.0%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의 추천을 받고 온 사람도 14.0%로 적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매체나 홍보책자, 관광안내 책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이는 적었다(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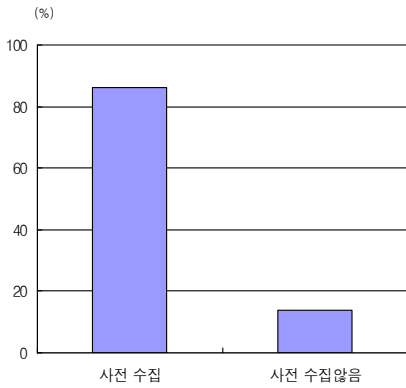


그림 10. 방문이전 올레정보수집여부(n=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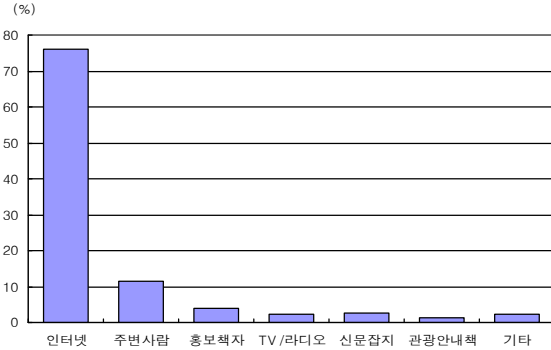


그림 11. 올레정보수집방법(n=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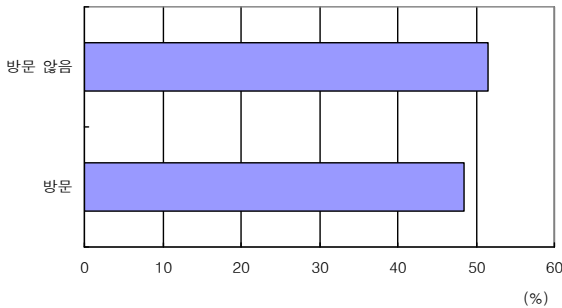


그림 12. 올레 길 탐방 전 안내센터 방문 여부

올레길을 탐방하기 이전에 안내 센터(공항 안내소 포함)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50% 약간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2).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올레 공항 안내소가 2010년 5월 18일 문을 열었지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안내소가 생긴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이 원인이지는 않지만, 제주올레 여행은 여행 전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준비하는 여행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주올레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주올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한 뒤에 여행 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2.6 이용교통수단 및 길동무의 필요성

올레꾼 69.5%는 제주올레 여행을 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3). 일반 관광객과 달리 렌트카나 승용차를 이용해 제주올레를 여행하는 비율은 13.0%였다. 중일 걸어야 하는 여행 특성상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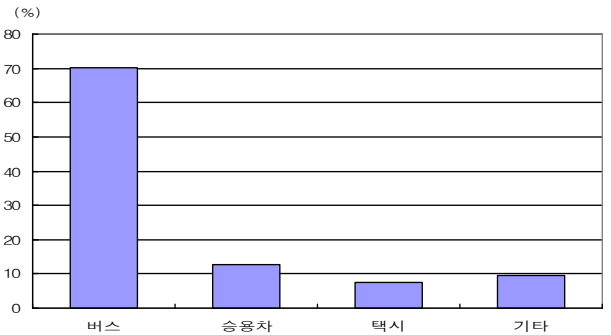


그림 13. 이용교통수단(n=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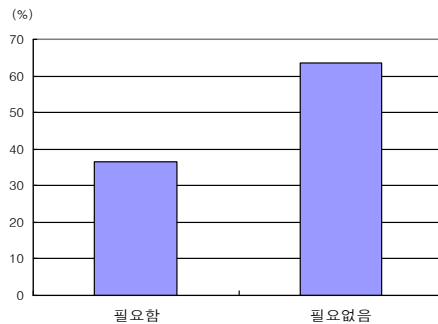


그림 14. 길동무(해설사) 필요유무(n=1080)

그림14와 같이 올레꾼들은 단지 길을 걷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동무(자연환경문화 해설사)의 필요성을 적잖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대상이었던 개별 여행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스케줄을 계획하여 여행하는 이들이며, 이들 34.9%가 길동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제주올레에서 길동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표 2 올레 개척 상 중요시 하는 항목과 내용

요소	내용
자연적 요소	자연적 요소는 지형, 지세, 숲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 요소
경관적 요소	환경이라는 실체의 개념보다는 관찰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경우에 보여 지고 형성되어지는 心像 혹은 이미지(image)와 관련된 요소
문화/역사적 요소 <sup>2)</sup>	지역사회가 성장발전해 오는 과정속에 축적되어 온 결과물로서 당, 굿, 심방(무당), 포제, 본풀이, 역사유적: 고인돌, 선사유적, 몽고군 유적, 읍성, 환해장성, 봉수와 연대, 잣성(마목장) 등의 요소
지역경제적 요소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요소
교육적 요소	환경보존 혹은 마을주민과의 교류 등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는 요소

3 인문사회 측면에서의 평가

3.1 올레 개척 및 코스에 대한 평가

탐방과정을 통해 개설된 올레 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개의 요소, 즉 자연적 요소, 경관적 요소, 문화/역사적 요소, 지역경제적 요소, 교육적 요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요소별 내용은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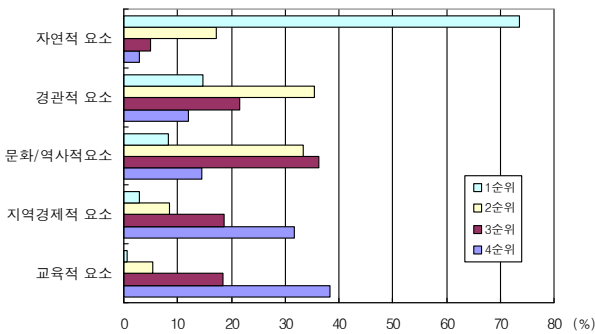


그림 15. 개척상의 중요순위(n=1059)

제주올레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요소는 자연적인 요소가 69.2%, 경관적 요소가 16.2%로 자연 경관측면이 85.4%이고, 문화역사적인 요소가 8.2%, 지역경제적 요소가 3.1%로 나타나 자연 경관적인 요소가 제주올레 길 개척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그림15). 개척 2순위에서는 경관적 요소가 33.2% 문화적 요소가 32.3%로 자연적 요소가 17.9%로 나타났으며, 개척 3순위에서는 문화 역사적인 요소가 34.9%로 가장 많고, 지역 경제적인 요소도 18.6%로 경관적인 요소 18.8%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요소도 17%로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

1) 김태일(2005), 제주건축의 맥, 제주대학교 출판부, p145  
 2) 한 지역 혹은 마을이 지닌 의식주의 기본 문화요소를 비롯한, 정신적·언어적·물질적 문화요소와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적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아울러 인문적 요소라고 하겠고, 이를 확장하면 인문사회적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3.2 생태계보존 및 영향

올레 길 조성이 제주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올레꾼의 52%가 생태계 보존에 ‘매우 도움이 됨’ 혹은 ‘그런대로 도움이 됨’이라고 대답하였다(그림16). 그러나 25%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음’ 혹은 ‘매우 도움이 안 됨’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를 탐방한 경험 정도에 따라 개설된 올레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올레 탐방정도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그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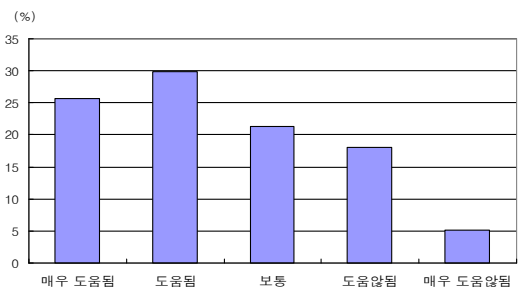


그림 16. 생태계보존에의 도움 여부(n=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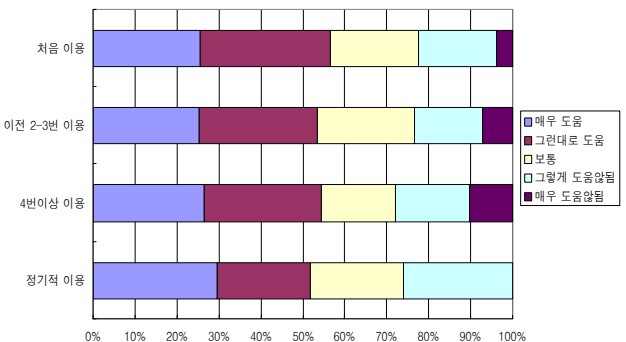


그림 17. 올레 경험 정도별 생태계 보존에 대한 도움 여부 (P<0.298 df=12 x2=14.039)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환경파괴를 부추겼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제주올레 길이 제주의 자연과 더불어 걷는 목적과 생태적이고 평화로운 사색의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민감한 자연의 속살을 밟고 걷는 길이라는 점에서 방문객들은 훼손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제주올레 길 개발이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24.9%는 길 개발이 제주 자연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올레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오름이나 흙길이 손상되거나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자들의 지속적인 간섭이 이뤄지는 탐방로의 속성상 그 유형과 행태에 따라 훼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실 이 질문에는 제주올레 길이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합리적 개발의 대안인가를 묻고 답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제주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묻는 의미일 것이다.

올레길은 다양한 유형의 길이 만들어졌다. 숲길, 오름길, 해안길, 농로길, 잣길 등 그 길의 특성에 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향후 올레길 조성 및 관리 계획 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코스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3.3 문화교류의 기능 및 개척상의 중요 요소

올레꾼의 88.6%은 제주올레가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8). 이는 올레꾼들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대중교통과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과 올레꾼, 올레꾼끼리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지역 문화 및 여행 문화들이 교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의 속살을 보는 여행’이라는 제주올레의 슬로건과도 맞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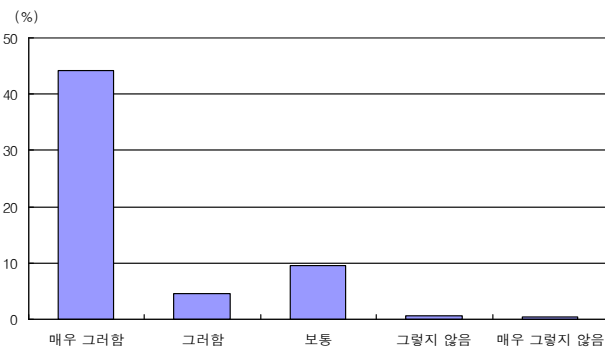


그림 18.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n=1076)

### 3.4 선호 코스 평가

제주 올레 선호 순위<sup>3)</sup>는 그림 1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해안 코스인 7코스(외돌개-월평 코스) 23.5%, 내륙-해안코스인 1코스(시흥-광치기 코스) 15.8%, 해안 코스인 10코스(화순-모슬포 코스) 10.1%로 조사 되어 해안 코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올레 길을 처음 찾는 이들은 풍광이 아름다운 해안 코스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7코스와 10코스를 선호한다. 특히 7코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었듯이 올레꾼들은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코스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그 과정에 난이도, 방문 후 평가 등을 고려하여 7코스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숙박 장소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sup>4)</sup>. 그리고 7코스는 다른 코스와 달리 탐방과정 중에 이탈이 용이한 장소적 특성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또 1코스는 바다와 오름을 함께 볼 수 있는 코스이며 맨 처음 열린 제주올레 길이어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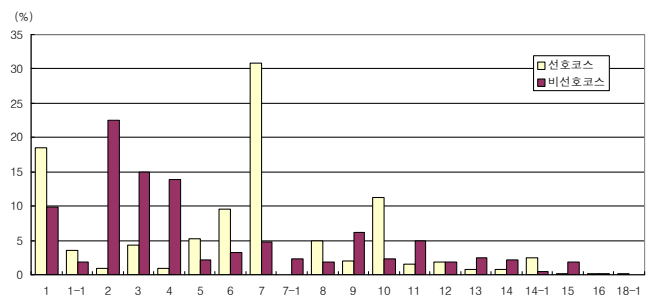


그림 19. 선호 및 비선호 코스(1순위 기준)  
(선호코스 n=886, 비선호코스 n=479)

한편 비선호 코스는 내륙 코스인 2코스(광치기-온평 코스) 9.5%, 해안-내륙코스인 3코스(온평-표선 코스) 7.3%, 4코스(표선-남원 코스) 6.2%로 나타났다. 이 세 코스 모두 해안 코스라기보다는 중산간을 걷는 코스여서 상대적으로 비선호 코스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산간 코스는 마을과 돌담, 굴밭, 오름 등을 볼 수 있는 호젓한 코스여서 명상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으나, 단지 풍광을 즐기기 위해 제주올레를 걷는 이들에게는 인기가 덜한 편이다. 즉 2코스인 경우 내륙 코스로 여행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들과 밭길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3코스 4코스인 경우 해안-내륙 코스이긴 하나 난이도가 상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 같다. 특히 3, 4코스는 코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코스여서(20km 이상) 선호도가 덜한 편이다. 제주올레가 코스 길이를 20km 이하로 개

3)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첫 번째 방문자의 경우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통해 선택한 올레코스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본 설문조사에서도 올레꾼들의 숙박장소가 서귀포시 중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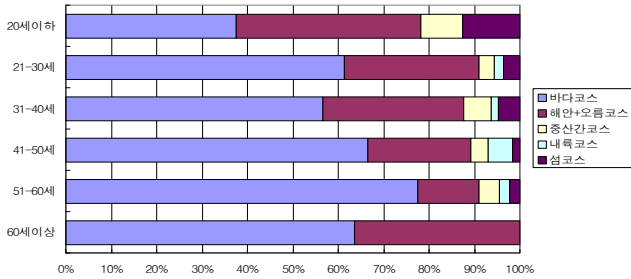


그림 20. 연령별 1순위 선호 코스 유형  
( $P < 0.002$   $df = 20$   $\chi^2 = 43.906$ )

척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편 연령별로 가장 선호하는 코스를 제2장에서 분류 하였던 장소별 코스 유형으로 정리하여 연령별 차이를 파악하여 본 결과(그림20), 전반적으로 바다코스를 선호 하는 경향이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바다코스를 선호 하는 경향이 강하고 2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해안+오름 코스와 중산간 코스를 선호하고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해안+오름 코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

올레꾼들의 올레 길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은 86.6%로 매우 높고 불만족의 비율은 1.1%에 불과하다(그림21). 한편 올레 경험 정도는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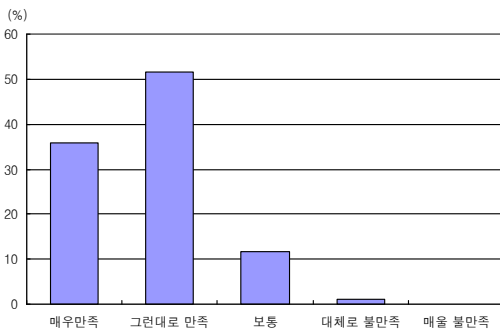


그림 21. 올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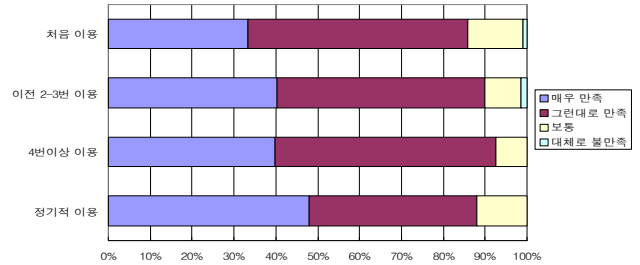


그림 22. 올레 경험 정도별 만족도  
( $P < 0.253$   $df = 9$   $\chi^2 = 11.342$ )

로 생각하였으나 크게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2). 즉 올레 경험 정도와 관계없이 올레꾼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재방문의 여부에 대하여 97.3%가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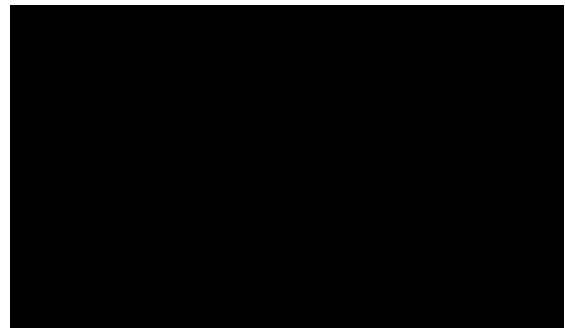


그림 23. 재방문의사(n=1066)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연령별, 올레탐방 빈도별 만족도를 보면(그림 24) 올레꾼들은 편의시설, 휴식시설, 식당 등의 인프라에 비교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올레가 길을 내면서 편의시설이나 인프라 추가 설치에 대해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이기도 하다. 10명 중 3명꼴로 불만족을 표시한 사람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올레꾼들은 대체로 코스 교통편이나 길의 길이, 길의 폭, 안전성 등에서 불만족을 표시한 이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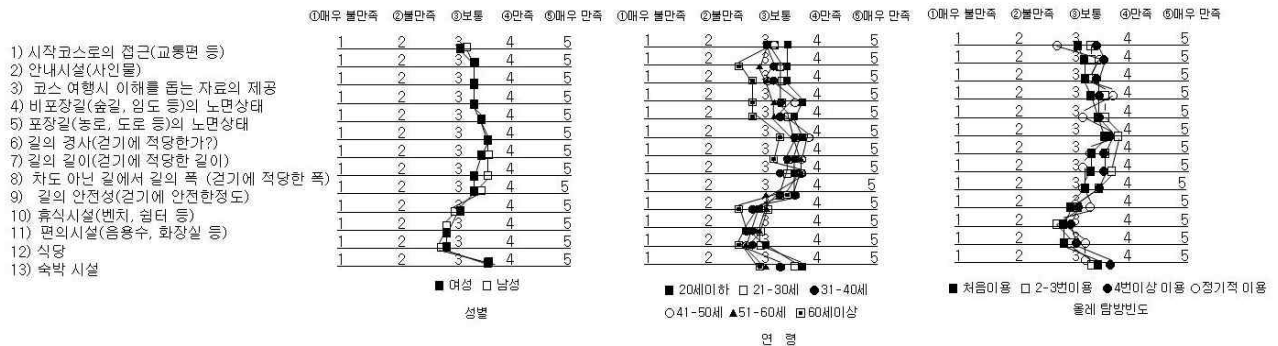


그림 24. 성별, 연령별, 올레 탐방 빈도별 만족도



미만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제주올레 길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이도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드러난 셈이다.

#### 4. 물리적 측면에서의 평가

##### 4.1 선호하는 풍경

한라산, 해안, 오름, 하천 풍경 등 자연 환경 측면, 과수원, 밭 등의 농작지, 밭담, 올레 길, 마을내 돌담 등의 지역적 환경 측면, 올레 표시, 숙소, 화장실, 안내소, 점포, 버스 정류장, 정자등 편의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답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 관심도 및 만족도를 평가해 보았다, 우선 관심도의 조사 내용을 보면,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림 25와 같이 한라산 전경인 경우 설문 조사자들이 예상외로 20.5% 정도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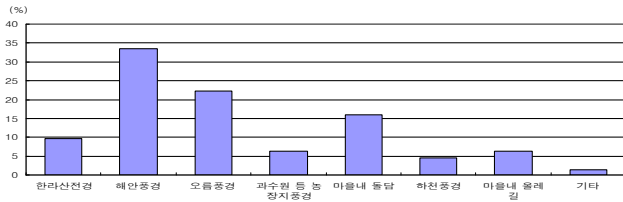


그림 25. 선호 풍경(복수응답, n=1052)

관심도로 보면, 해안풍경(82.6%), 오름 풍경(53.8%), 한라산 전경(20.5%), 하천 풍경(7.9%)순이었다. 지역적 환경 측면에서는 마을 내 돌담(39.7%), 농작지(16%), 올레길(15.4%) 순서로 조사되었다.

올레꾼들이 기억하는 풍경은 해안과 오름, 돌담 풍경이다. 이는 제주올레 길의 풍광을 주로 차지하는 풍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라산의 경우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풍광이기 때문에 올레 길에서는 큰 인상을 남기지 않는 듯하다.

##### 4.2 설치 디자인물 평가

도내 시설물 디자인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항목은 쉼터/정자(19.8%), 버스정류장(18%), 마을안내 표지판(14.4%), 식당(14.4%)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마을 자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그림 26). 특히 쉼터/정자의 경우 제2장 유형별 코스 현황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성 제품의 정자를 과도하게 설치하고 있고 안내표지판 역시 지역에 따라 홍보 효과를 위해 과도하게 설치해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제주올레가 설치한 인공 시설물에 대한 평

가에서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항목으로 화살표(39.7%), 버스 정류장(34.5%), 쉼터(34.3%), 화장실(31.8%), 마을안내 표지판(26.6%), 안내소(22.9%), 식당(22.9%), 올레 안전 시설물(15.7%) 등의 순서로 나타나 화살표와 화장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그림27).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화살표의 사인물은 올레 개설당시 동일한 장소에 여러 유형의 화살표가 남발되거나 혼재되어 사용<sup>5)</sup>되었던 장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둘째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올레 화살표와 유사한 표식을 추가하였다는 점, 셋째 화살표의 재료와 크기 등 작성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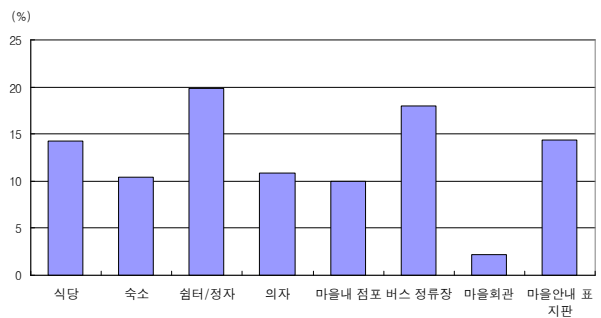


그림 26. 도내설치물(복수응답, n=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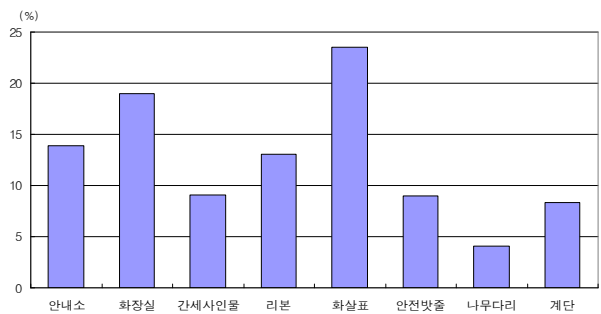


그림 27. 올레설치물(복수응답, n=958)

또한 화장실의 경우 제주올레 화장실과 마을 간이 화장실이 혼재된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올레 화장실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제주올레가 설치하지 않은 화장실 즉, 행정기관이 편의성을 위해 기존에 임의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레 길에 대한 만족 및 평가에 있어서는 올레 탐방 빈도

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제주올레에서는 2009년6월 13코스개설 부터 작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화살표를 표기하고 있다.



와 연령에 관계없이 만족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코스과 특정 지역의 풍경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올레를 걷는 것 자체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생태계 보전에 대한 도움 여부에 있어서는 올레길 개설이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올레꾼은 생태계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올레 탐방로 개설 그 자체에 의한 생태계환경의 훼손보다는 일시에 많은 올레꾼들이 탐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훼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훼손을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올레길 주변 설치물에 대한 개선점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시설물로서는 쉼터/정자,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올레 관련 설치물에 대해서는 화장실, 안내소, 리본 등이 해당되는 개선대상이었다. 최근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준화된 디자인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09), 제주올레 길 마을 스토리텔링 자료조사 보고서
15.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일본 지역 만들기 부화장을 가다
16. 한국생태학회(2009), 국립공원8 및 보호지역 ;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17. The Bruce Trail Association, Guide for Trail Workers Third edition
18. Cotswold Way National Trail Office(2009), The Cotswold way
19. Eden Project(200): The Guide

## 참고문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이플러스 에드
2. 국토연구(2008)원, 건강 문화 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3. 노형철, 희망제작소(2010), 작은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시대의 창
4. 박원순(2009),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검동소
5. 신영철(2009), 걷는 자의 꿈 존 뮤어 트레일, 은행나무
6. 서명숙(2008), 제주 걷기 여행, 북하우스
7. 서명숙(2010), 꼬닥꼬닥 걷는 이 길처럼, 북하우스
8. 사단법인 제주올레(2010), 제주올레 가이드북
9. 송인주(2008),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 은영태, 염철호 역(2008), 지역 만들기의 신조류, 기문당
11. 진영환, 임정민, 정윤희 옮김(2008),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한울아카데미
12. 진영환, 임정민, 정윤희 옮김(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례편), 한울아카데미
13. 장태산, 한국생태학회(2009),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로 노선 계획에 관한 연구